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 아시아·태평양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에 관한 동향 분석

박기식 표준체계연구실 책임연구원/실장  
TTA 기획전략 특별위원회 의장  
김영태 표준체계연구실 선임연구원  
TTA 국제협력전문위원회 위원  
조인섭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서기관  
신동준 정보통신부 서기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인식 제고와 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동 지역에서는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문제등을 포함한 표준화활동  
강화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관리아사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에 대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의 향후 대응방향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 I. 개 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표준화기구 설립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96년 10월 뉴델리(인도)에서 개최된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장관회의에서 결의된 “Regional Action Programme of the New Delhi Action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Indicative Projects” 중에서 프로젝트 #8의 “Establishment of an 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채택으로 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97년 2월 동경(일본)에서 개최된 제2차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표준화회의에서는 아태 지역의 표준화기구 설립 문제가 표준화기구 명칭인 ATSI(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거론과 함께 ITU와 일본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기되었다.

- ITU(Dr.S.K.Hajela, ITU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Establishment of ATSI” 기고문에서, 지역 전기통신 표준화기구로 확고한 위치를 잡고 있는 유럽의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비교를 하면서, 아태 지역에서도 이에 걸맞는 ATSI와 같은 지역 표준화기구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ATSI의 기능은 아태 지역의 각종 표준의 준비, 실행 및 집행은 물론, 각종 교육 및 훈련, 형식승인, 시험기관 인정, 상호접속성, 상호운용성, 이용자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일본(Mr.M.Kawauchi,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Office, Communications Policy Bureau, MPT)은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ATSI” 기고문에서, 아태 지역에서 ATSI와 같은 표준화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우선 그 가용성이 사전에 철저히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ATSI와 같은 지역 표준화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ATSI의 역할(임무), 작업방법, 위치, 활동범위, 각종 인적물적 자원 및 그 리더쉽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ATSI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Ad-hoc Group”의 구성 및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그 활동은 ATSI 설립에 관한 정보 수집, 물리적인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 ITU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와의 효율적인 연락체계 유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이와 같은 ITU와 일본의 ATSI 설립 문제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간에 설립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APT에서는 ;

첫째, 아태 지역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 표준화기구로서의 ATSI는 표준 제정만을 그 목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유럽의 ETSI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세부적으로 ATSI는 각국의 국제 표준 기고에 대한 내용을 사전 조율하여 국제적인 표준으로 제안이 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표준에 대한 상호운용성 분야의 국가간 협력이 수행되어야 하며, 특정 관심 분야(TMN, IMT-2000 등)에 대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등의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고, APT 회원 국가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그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가 공감한 상태에서 ATSI 설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현

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다양성 및 이질적 특성 등과 같은 이유로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어 ATSI 설립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을 사전 조사 연구하기 위한 “Ad-hoc Group”을 APT 산하에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Ad-hoc Group”의 장 국가는 일본으로 하며, 본 “Ad-hoc Group”의 임무는 표준화 활동에 관한 APT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방안 제안 및 표준화와 관련한 특정 분야(예 : 기술적 지원, 훈련, 상호 인정 협정 등)에 대한 권고(안) 작성 이외에도 ATSI 설립과 관련한 각종 절차 조사 연구(예 : 인적기술적경제적 차원 등)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1997년 2월 APT 표준화회의에서 논의된 표준화 관련 APT “Ad Ad-hoc Group”의 역할은 <표 1>과 같다[1].

이렇게 해서 “Ad-hoc Group”은 일본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으로는 우정성의 Mr.M.Kawauchi로 결정되었으며, 아울러 아태 지역의 표준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1997년 3월 <표 2>와 같이 주요 APT회원 14개 국가(호주, 중국, 인도, 이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3

명),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베트남, 홍콩 등)로부터 “Ad-hoc Group” 활동을 위한 Member를 추천(한국 : ETRI/PEC 박기식)받아 보다 능동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각국의 표준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Ad-hoc Group”의 첫번째 활동은 아태 지역의 표준화활동 증진에 대한 각 국가간의 Consensus를 도출하기 위해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Expert Group 설립, EDH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 전자적문서처리) 활용 관련, ATSI 설립에 관한 내용의 설문지를 작성배포했다. 설문지는 모든 APT회원(정회원 : 29개, 준회원 : 4개, 협찬사 : 35개)에게 보내졌으며, 응답은 최종적으로 42개(정회원 : 18개, 준회원 : 3개, 협찬사 : 21개)가 되었다. 각 분야에 대한 그 응답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 3> ~ <표 5>와 같다.

<표 3> ~ <표 5>과 같은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Ad-hoc Group” Member간의 보다 심층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1997년 8월, 치앙마이(태국)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동 회의에서는 일본이 “Ad-hoc

<표 1> APT Ad-hoc Group on Standardization(제2차 APT 표준화회의)

	주요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 지역에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협력적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향해, 새로운 기구의 목적, 구조, 활동범위, 작업방법 등에 관한 연구(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APT 헌정 개정도 고려)</li> <li>○ 1998년도의 제22차 APT 관리이사회에 새로운 기구에 대한 세부사항 및 관련 권고사항을 보고서로 제출</li> </ul>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hoc Group 의장은 _____ (당시 : 미정)</li> <li>○ 어떠한 APT 회원도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li> </ul>
작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전자적 통신수단 활용</li> <li>○ 필요하다면 ESCAP, ITU, ABU 및 다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li> <li>○ APT SG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내용을 고려(중복 안되게)</li> <li>○ 1998년도의 제22차 APT 관리이사회에 보고 및 1998년 8월말까지는 기구의 설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출 준비</li> </ul>

〈표 2〉 APT Ad-hoc Group Member(총 14개국 16명)

	Country	Name	Status
1	Australia	Mr. Rob Mackay-Sim	Assistant Director/International Relation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ivision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
2	China	Ms. Gao Huiying	Economist 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 Ministry Engineering Center
3	India	Mr. Dilip Sahay	Senior Deputy Director General Telecom Engineering Center
4	Iran, Islamic	Mr. Mohammad Reza Bahmanl	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 Ministry of Posts, Telegraph and Telephone
5	Japan	Mr. Shigeyuki Kubota	Director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Office Communications Policy Bureau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6	Korea, Republic of	Dr. Ki-Shik Park	Principal Researcher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7	Malaysia	Mr. Zakaria Che Noor	Director of Networks and Services Jabatan Telekom Malaysia Ministry of Energy, Telecommunications and Post
8	Malaysia	Ms. Rohani Saim	General Manager/Telekom Malaysia
9	Malaysia	Mr. Chan Hiong Poh	General Manager Mutiara Telecommunications Sdn Bhd
10	Nepal	Mr. Amrit Prasad Shrestha	Senior Executive Engineer Operation and Maintenance Department Nepal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11	Singapore	Mr. Ling Keok Tong	Assistant Director 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
12	Sri Lanka	Mr. K. Selvarajah	Chief Engineer/Technical Standard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of Sri Lanka
13	Thailand	Mr. Silpachai Bijayendrayodhin	Director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Post and Telegraph Department
14	Tonga	Mr. Mosese Ueleni	Engineering Division Tonga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15	Vietnam	Mr. Nguyen Duc Trung	General Manager Science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Department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
16	Hong Kong	Mr. Leung Shiu-Kee	Senior Telecommunications Engineer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표 3〉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Expert Group 설립 관련 설문 내용

설문내용	응답 내용
적절한 Expert Group 수	- 대부분의 응답자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1개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
Expert Group의 특정 기술분야	- 다양한 주요 기술분야 중 통신망 관리(NM) 분야를 가장 우선순위로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무선통신(이동통신, 스펙트럼 관리 등), 멀티미디어(인터넷, B-ISDN 등)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pert Group의 주요 활동	- 많은 응답자가 Expert Group은 특정 기술분야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준화에 관한 정보교환 및 국제 표준화기구에 공동 표준(안) 제출을 주요 활동범위로 지적했음.
정기회의의 필요성	- Expert Group에 대한 정기회의는 회원 국가간의 표준화에 관한 아이디어 및 견해 교환 및 효율적인 작업 일정을 정립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자 중 75%가 지적했음.

〈표 4〉 EDH 활용 관련

설문내용	응답 내용
인터넷 사용 여부	- 응답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응답함.
인터넷에 대한 직접 사용여부 및 방법	- 응답자의 85% 이상이 e-mail, WWW, FTP 등을 통한 인터넷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응답함.
정보교환의 종류	- EDH 활용을 통한 정보 교환의 종류에 있어서, 응답자는 각국의 표준화 관련 제도 및 체계, 국가 표준 목록, 각국의 표준화활동 또는 기술현황 소개, 주요 표준화기구와의 WWW에 의한 홈페이지 접속 등의 순서로 응답함.
정보교환을 위한 특정서버(DB)의 설치 위치	- 정보교환을 위한 특정서버의 설치 위치는 응답자 중 50%가 각국의 설치 보다는 APT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표 5〉 ATSI 설립 관련

설문내용	응답 내용
ATSI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	-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 지역에서의 전기통신산업을 선도할 지역 표준화기구가 몇년내에 설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몇몇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Expert Group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지역 표준화기구의 주요 업무	- 새로운 지역 표준화기구의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응답자는 국제 표준화 이슈에 대한 지역적인 표준(안) 준비, 표준화와 관련한 훈련, 국제 표준화에 부가되는 지역 표준(안) 작성 등의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새로운 지역 표준화기구를 통해 지역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안) 작성, 하향식 표준화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단말장치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 등도 추진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ATSI가 설립되는 경우 APT의 역할	- 응답자의 80% 이상이 APT내에 새로운 지역 표준화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아울러 이 새로운 기구에는 기존의 APT 회원인 정부(규제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에 제조업자도 회원으로 포함하여 활동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음. - 또한,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회원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예산은 APT 또는 UN 등으로부터의 지원 및 각 회원국의 기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p>ATSI 설립시 기타 사전 조사 사항</p>	<p>-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몇몇 응답자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목적, 회원, 사무국 위치, 예산, 기구 설립시의 잇점, 주요 일정 계획 등이 사전에 명확히 조사되어야 함을 지적했음.</p>
-----------------------------	--

Group” 의장을 기존의 Mr.M.Kawauchi(MPT)에서 Mr.S. Kubota(MPT)로 바꾸어 활동을 재개했으며, 호주가 현행 APT 정관 및 업무범위내에서 AP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TSF(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orum)의 체제의 출범으로 즉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997년 2월의 동경회의에서 논의된 다른 형태로 지역 표준화기구의 설립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Member들간에 명칭 문제, 발족 시기 문제 등과 같은 문제로 많은 견해 차이가 있어 추후에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론하기로 했다.

## II.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에 관한 주요 쟁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기통신표준화 활동 강화를 목표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사전 활동이 진행되어 오면서,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Expert Group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국가가 동의했으나, 별도 기구의 설립 여부, 기구의 명칭, 발족 일정, 관련 기구를 위한 사무국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각국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ATSI와 관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표준화기구 설립을 둘러싸고 제기된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별도 기구 설립 여부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기통신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 표준화 기구 설립 여부 문제는 인도가 ESCAP의 ATSI 설립 결정에 따른 기구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초기에 ESCAP의 ATSI 설립 결정에 따른 기구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제 21차 관리이사회 회의(1997. 11. 24. ~ 11. 28., 태국(방콕))에서는 약간 주장을 바꾸어 APT 내에 설립을 주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에 있다. 호주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표준화 관련 활동을 시급히 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나라는 APT내에 표준화활동 강화를 위한 기능을 두면서 동 지역의 경제적, 기술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완곡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 2. 기구의 명칭 문제

1997년 2월의 동경 회의에서 아태 지역의 표준화기구에 대한 명칭이 일본 등에 의해 ATSI로 처음 제기된 이래, 1997년 8월의 치앙마이 회의에서 호주가 ATSF(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orum)로 하자는 반론을 제기하자, 일본은 ATSI의 “I(Institute)”의 이름을 “C”로 하여 Committee, Council, Cooperation Committee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ATSI의 “A”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명칭 문제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ATSI로 되면 필요 이상으로 유럽의 ETSI와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오인되어 경쟁적 차원에서 타 지역을 자극할 수도 있어 기구의 명칭을 주의깊게 설정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제안의 ATSF의 "F"는 Forum을 의미하며, 이것은 1회성 내지는 연속성이 없다는 느낌을 담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치앙마이 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3. Ad-hoc Group 및 Expert Group의 활동 시기 문제

일본은 Ad-hoc Group 및 Expert Group의 활동은 APT 총회가 있기 전까지의 1999년도까지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는 즉시 ATSF 설립을 위한 활동을 1998년부터 하고자 제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관련 활동을 미루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 4. 사무국 위치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APT의 본부가 있는 태국에 ATSI 사무국 역할을 함께 맡기면 예산 절감 및 표준화 업무 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인도와 이란은 ESCAP내에 설치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 III.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요약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 회의(1997. 11. 24. ~ 11. 28., 태국(방콕))에서는 "Ad-hoc Group"의 활동결과 및 보고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등이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과 관련한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표 6>.

결국 최종적으로는 본 회의 기간 동안에 열린 "Ad-hoc Group" 회의에서 하나의 타협안을 만들어서 Management Committee에 보고·승인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아태 지역의 표준화활동을 위한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구축.  
\* "Program"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명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함.
- 표준화 핵심 분야에 대한 3개의 Coordinating Group(Network Management, Radiocommunications, Multimedia)을 별도로 운영하고, 1998년초(2월) 태국에서 첫 표준화 Steering Committee Meeting인 "Coordination Meeting on Standardization"을 가지기로 했으며, 그 회의에서는 1년을 임기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키로

<표 6>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을 위한 일본, 인도, 호주, 한국의 주장 비교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명칭	ATSI(변경 가)	ATSI	ATSF	APT표준화부문
새로운 기구와 APT와의 관계	APT내에 위치	ESCAP내 위치	APT와는 적어도 독립적 활동	APT의 내부활동 차원
관련 활동 개시 시점	점진적	점진적	즉시	점진적
참여범위	APT회원 중심	?	Industry Sector에 중점	APT회원을 토대로 확대, 강화

하고 참가범위는 개방하기로 함(Guest Participation까지 보장).

- 위와 같은 회의 준비 등을 위해 기존의 “Ad-hoc Group”을 Steering Committee로 활용하기로 함. 따라서 Steering Committee에서는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의 작업방법, Expert Group의 활동계획, 차기년도의 작업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함.

- 제1차 표준화 Steering Committee Meeting인 “Coordination Meeting on Standardization”의 첫 회의를 위해 \$30,000의 예산 배정을 요청함.

이에 대한 “Ad-hoc Group”의 세부 활동 방향 및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의 주요 내용은 각각 <표 7>, <표 8>과 같다.

아울러, “Ad-hoc Group” 의장은 제21차 APT 관리이사회 회의를 통해 Coordinating Group이외에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중요 사항으로 표준의 품질, 작업 방법 개발 및 표준 언어 등 3가지를 언급했으나,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근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품간 또는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IOP : Interoperability) 이

슈를 중요 사항으로 추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Ad-hoc Group”의 활동 목적과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목적의 상충된 부분 등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Steering Committee” 자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 IV. 향후 대응방향

향후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에서의 표준화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8년 2월(태국, 방콕)의 Steering Committee Meeting인 “Coordination Meeting on Standardization”에 대응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Meeting에서 일본이 의장국으로 선출될 경우, 우리나라는 2명의 부의장 중 1명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지역의 표준화 추진전략 및 방법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태 지역 국가들의 기술적 수준 차

<표 7> APT Ad-hoc Group의 세부 활동 방향(제21차 관리이사회 회의)

	세부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 지역에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협력적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향해, 새로운 기구의 목적, 구조, 활동범위, 작업방법 등에 관한 연구(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APT 헌정 개정도 고려)</li> <li>○ 1998년도의 제22차 APT 관리이사회에 새로운 기구에 대한 세부사항 및 관련 권고사항을 보고서로 제출</li> <li>○ 초기 “Coordination Meeting”을 이끌어 나갈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을 위한 “Steering Committee” 활동</li> </ul>
위원	○ 어떠한 APT 회원도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작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전자적 통신수단 활용</li> <li>○ 필요하다면 ESCAP, ITU, ABU 및 다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li> <li>○ APT SG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내용을 고려(중복 안되게)</li> </ul>



〈표 8〉 "Asia 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의 주요 내용(제21차 관리이사회 회의)

	세부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화에 관한 지역 협력방안 설립</li> <li>○아태 지역에서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조화</li> <li>○회원간의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li> <li>○표준화에 관한 견해 및 정보 교환 등과 같은 표준화 협력활동을 통한 국제 표준화활동에 보다 큰 기여</li> <li>○아태 지역에서의 전기통신표준화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조정 역할 강화</li> </ul>
활동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통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 기술 분야에 관한 표준화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li> <li>○Expert Group 설립 및 표준화이슈에 관한 지역적 입장을 조정</li> <li>○표준화활동과 관련한 견해 및 정보 논의</li> <li>○ITU 회의 등에 공동 제안 준비</li> <li>○국제표준으로 보완되기 위한 기술규격 권고(회원국이 요구한 표준에 대해)</li> <li>○ESCAP, ITU, ABU 및 다른 관련기관과 표준화 문제에 관한 협력 및 조정(요구된 경우)</li> </ul>
작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활동이 의미적/효과적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적인 결정사항을 채택하기 위한 "Coordination Meeting"은 적어도 1년에 1번은 개최</li> <li>○작업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1년을 임기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li> <li>○활동은 APT SG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하에 계획</li> <li>○각 합의된 활동을 위해 1명의 Rapporteur 또는 Coordinator 선출</li> <li>○활동은 자발적으로 되어야 하며, 가능한 전자적 통신수단을 활용</li> <li>○자발적인 활동 그룹은 자체 지원(APT 사무국에서의 지원이 아닌)을 원칙으로 하고, 그들의 작업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함(이에 대해 APT 관리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제외)</li> </ul>

이, 경제적 발전 속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추진 문제를 표준을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상호운용성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IMT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 IOP : Interoperability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MPT :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TMN :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 WWW : World Wide Web

**[주요 약어표]**

- APT : Asia Pacific Telecommunity
- ATSI : 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EDH :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 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참고문헌]**

- [1] APT, Proceeding of 2nd APT Meeting on Regional Cooperation in Standardization, 18-20 February, 1997.
- [2] APT, The 21st Sess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Asia-Pacific Telecommunity, "Report of APT Ad-hoc Group on Standardization", Doc. No, MC-21/8,3, Additional 1,24-28 November 1997.

